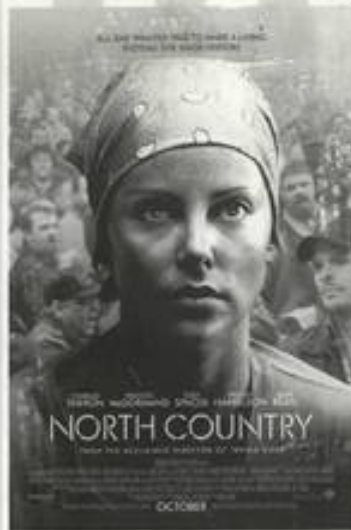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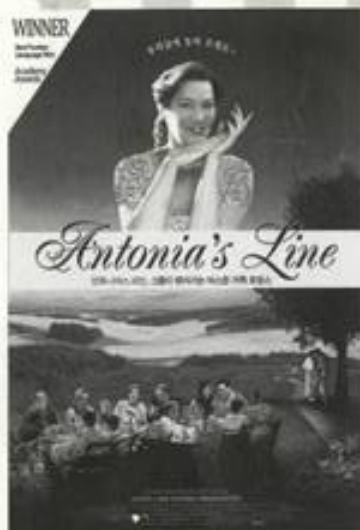




올 나잇 무비파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3년 11월 1일 늦은 8시
학생회관 3층 여학생 휴게실

문과대학 여성주의 소모임 '앨리스'

(문의 : 010.4522.4407)

성패

2013년 가을
문과대학 여성주의 소모임 앨리스

같은 듯 연애에 대하여
갈로 가시목걸이를 한 자화상
결정능력 테스트를 통해 본 나?

TO FEMINIST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대성재기의 죽음, 그 이후

이 풀음의 자치규약을 소개

평등센터 리고 총여학생회

중도 앞 상평등... 비판자보에 대한 심층 접근

ALL NIGHT MOVIE PARTY

〈안토니아 라인〉을 통해 본 모권제의 단상
최초의 여성 성희롱 승소 사건을 다룬
김동 실화 〈노스 컨츄리〉

11월 1일 20시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함께 웃고 울다가 배꼽파는

올나잇 무비파티가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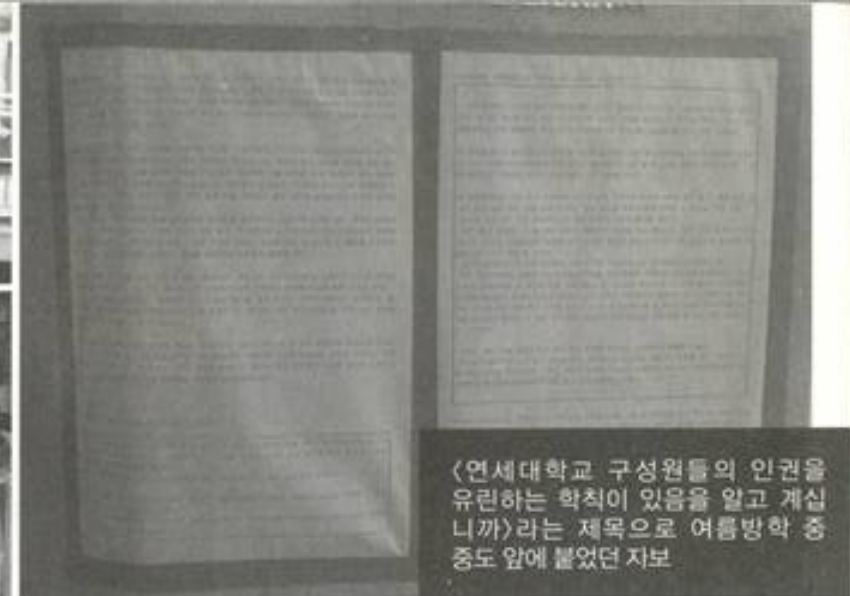
꽃치면 두고두고두고두... 후회할 기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 영화 이외에도 나의 페미곡선 그리기
막간 게임 등 다과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 남학생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come, come!

행파

문과대학 여성주의 소모임 앨리스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학칙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여름방학 중 중도 앞에 붙었던 자보

FEMINISM

- 04 발간사
이 책자가 당신과 우리의 시작이 되
길 바라며
- 06 나의 행복을 위한 페미니즘 연애 상담소
- 08 남성 페미니스트



- 10 성재기의 죽음 그 이후
- 14 쉬어가기 ①
여성주의 화가 프리다칼로의 작품 들여다보기

- 16 성평등센터와 총여학생회가 도무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는 당신에게
+ 학내 여성운동의 역사
- 24 술잔 담백하게 기울기 짝 댄 우리들의 여성주의 자치규약
- 26 성적의사결정능력 테스트
- 28 앨리스 녹취록-당신에게 페미니즘이란



- 33 여성노동자
아시이나승무원 권수정씨를 만나다
- 38 기획단 후기

이 책자가 당신과 우리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라이딩 후드

때로 한 편의 글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한다. 예컨대 새내기 시절 뭘지도 모르면서 중도 입구에서 집어 들었던 책자들이 그러했다. 그 존재 자체가 생소했던 '총여학생회' - 총학생회랑 총여학생회가 따로 있는 거야? 왜? - 에서 나온 얇은 책자는 알아보기 어려운 일러스트와 뾰뚱한 글 편집이 좀 불편한 느낌을 주기는 했지만, 너무나 새로워서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대학이구나 싶었다.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 연합 책자'를 구경하며,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대학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 나도 '페미니스트'가 되어서 '졸페미'라는 욕을 먹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뭔가 내가 찾던 것이 있을 것만 같다는 느낌에 두근거리며 저런 책자들을 뒤적이고, 또 다음 책으로 건너가던 때가 생생하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정말로 그런 것이 있었다. 어쩌면 할 일 없었던 고민들을 얹어줄지언정 그 고민의 끝에 나를 분명히 더 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언어들, 그 언어들을 계기로 모인 소중한 사람들, 책자 한 권을 주워든 손길 하나가 인생의 전환점을 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도 입구에서 그런 글들을 만날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다.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은 아닐 것인데, 지금도 수많은 뉴스들이 보여주는 것들,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어쩌서 그에 대해서 말하는 목소리들은 자취를 감춘 것일까? 남은 것이 별로 없는데도, 오히려 왜 이런 것들이 남아있냐는 성토를 접하기가 더 쉽다.

대학에서 페미니즘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 전반에서는 어떤가? '도가 지나친 역차별이 넘치는 한국사회가 열사를 만들었다'고 외치는 분노의 물결이 거셀 때에, 그것이 내가 알고 있고 매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와 분명히 다르다고 느껴면서도 - 그 '사회'에 대한 분석이 분명 페미니즘 운동의 기반일텐데도 - 아무 말 할 수 없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일 성폭력 사건이 선정적으로 포털 사이트 대문을 뒤덮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이름 없던 폭력에 '성폭력'이란 이름을 붙이고 이를 낳는 사회를 바뀌려 했던 반성폭력 운동의 힘은 어디로 갔는가? 사회적으로 성폭력은 이제 가십거리가 되었고, 학내에는 학칙이라는 제도는 남아있더라도 그 제도들에 살을 붙이고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설명할 목소리가 사라졌기에 그 제도들도 끊임없이 의심받고 도전받는다. 실로 페미니즘의 위기이다.



앨리스가 토끼의 굴 속으로 떨어지며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물론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반성적 평가를 통해 다시 덮고 일어날 수 있도록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 원인을 찾아보자면, 일정 부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성 범주와 보편성의 해체를 외치던 '포스트페미니즘'이 남긴 것은 여성해방 운동의 불가능성과 눈앞에 있는 현실 - 여성도, 보편성도 해체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 에 대한 부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차별주의에 저항하고 여성의 시민권을 확립하기 위한 이론이자 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 이 책자를 내는 것은 지적인 만족도 보여주지식 사업도 우리끼리 돌려보려는 것도 아닌, 바로 그 페미니즘으로 다시 조율한 대학에 파동을 만들려는 실천의 시작이다. 물론 글 몇 편에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직선의 시작점에서 방향이 1도가 바뀌어 계속 가다보면 마침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듯이, 이 책자 한 권이 당신의 인생과 우리의 대학, 세상을 아주 조금이라도 건드려 놓을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행복을 위한 페미니즘 연애 상담소

천동벌거숭이

괴여의 괴여의 웃음에 괴여의
너무 괴여의 너의 연인 그대
먼저 괴여의 너의 웃음에서
괴여의 웃음에서 너의 웃음에서

두려워 두려워 너의 그 두 눈빛
매서 버림의 질아 표출 수만 배로
생각의 생생한 너의 그 생생한
기스려 주고 싶은 마음 아만함

돌만의 괴롭음 돌만의 냉각고
돌만의 사진들 돌만의 비밀기
돌만의 수감함 돌만의 차인간
돌만의 계몽물 돌만의 추억에기

(후략)

사람이 똑똑 떨어지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꽤 오랫동안 유행했고 영화, 광고 등 여러 매체에서 등장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연애에 대한 보편적인 환상을 잘 담아냈기 때문이라고 평가됩니다. 저는 특히 <돌만의>로 시작해서 <꽃만의>로 끝나는 부분의 가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돌만의>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연애를 <돌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이 되면 <돌만의>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더 깊은 사이로 발전하곤 합니다. 가사에서처럼 돌만의 기념일을 행하고 돌만의 추억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연애는 다른 관계들보다도 특히 <사적>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연애 이외의 다른 관계들은 어떠한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선생과 학생 간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공론화 할 수 있고, 자주 공론화되어집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에게 대드는 동영상 인터넷에 게시됐다고 생각해봅시다. 분명 그 학생과 선생 둘만의 관계에서 생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당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공론화 시키려는 눈치를 보이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당하곤 합니다. 굳이 연애를 공론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공론화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이외에도 과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쉽게 공론화 됩니다. 과의 선배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과내에서 개인의 차원이 아닌 과 차원의 문제 해결이나 원인에 대한 논의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술을 강요하고 그로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그들 개인의 문제 가 아니라 과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사회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곤 합니다.

한 데이트를 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은 사회에 속한 연인들이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사회적 요소의 탓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사회적 요소에 있다면, 이는 분명히 그 사회 공동체 내에서 공론화하고 공동체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만 다른 연애이지만 비슷

한 데이트를 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은 사회에 속한 연인들이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사회적 요소의 탓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사회적 요소에 있다면, 이는 분명히 그 사회 공동체 내에서 공론화하고 공동체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데이트를 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은 사회에 속한 연인들이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사회적 요소의 탓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사회적 요소에 있다면, 이는 분명히 그 사회 공동체 내에서 공론화하고 공동체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데이트를 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은 사회에 속한 연인들이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사회적 요소의 탓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사회적 요소에 있다면, 이는 분명히 그 사회 공동체 내에서 공론화하고 공동체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 많은 상황들이 연인들에게 <비슷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고백은 남성이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성은 남성이 고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는 여남에게 문제가 됩니다. 스킨십을 <리드>하는 것도 남성입니다. 여성은 스킨십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남성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매너 있는 남성>의 기본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문제는 꽤나 보편적으로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돌만의>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그 문제들이 다른 연인들에게도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공론화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문제들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연애를 온전히 사적 영역의 것으로만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온전히 사적인 관계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회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애를 사적 부분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연애를 바라보도록 하는 성별을 둘러싼 사회의 여러 권력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여러 권력 구조 중에서 연애관계는 특히 성별간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페미니즘은 이 성별 권력 구조를 분석하는 도구로서의 의의를 가집니다.

연애관계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여성이 남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 <바라는 여자>라고 취급받고 더럽다고 표현되기 쉽습니다. 대중 매체나 실재 생활에서 선호되는 여성상은 대놓고 자신의 성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색시한 컨셉으로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유혹하되 밝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의도치 않게 아이유가 남자아이들과 잠옷을 입은 채로 찍은 사는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의도치 않게 아이유가 남자아이들과 잠옷을 입

적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그의 순결이 더럽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큰 논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아이유의 인기는 추락했지만, 상대 남자 아이들은 아이유만큼의 악영향을 받지 않았죠. 이처럼 사회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합니다. 남성이야말로 연애관계의 주체이기 때문에 남성의 영향력 하에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여성들만이 사회에서 살아남습니다. 아이유는 남성 중심 사회가 그에게 쥐어준 순결한 여성이라는 구조에서 벗어난 듯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별권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애관계에서 성별구조를 둘러싼 문제들은 너무 허다하고 당연시되어서, 우리가 다르게 보지 않으면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쳐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미니즘으로 연애 다르게 보기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여남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식하고 또 사회에 문제제기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원인모를 불편함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 페미니스트 김자

"선배, 근데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5월, 농활에서 여성주의에 대해 설명하던 나에게 한 여자 후배가 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순간 발문이 막혀버렸던 기억이 난다.

페미니즘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하던 나를 보며 이 후배는 생각했을 것이다. '저 선배는 여자로 살아온 경험이 없을 텐데, 저런 감정을 실제로 느끼는 게 맞는 걸까?' 순간 나 역시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고, 내가 어떤 자격으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각기 다른 경험은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을 구성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거나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 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이 구성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다양한 조건들 중에서도 '성별'이라는 조건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매우 큰 조건이다.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생리를 할 수 없는 남성은 생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삼리적/육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힘들지에 대해 고민과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여성의 몸이 상품화 된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또 감추어야 하는 여성들에게, 더운 여름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하는 등욕이 얼마나 시련일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남성들에게 성적 호기심의 대상일 브래지어가 더운 여름날 여자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함인지 어떤 남성도 알 수 없다.

나 역시 23년간 '남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경험하는 혹은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한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그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남자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나요?' 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성이었다. 그리고... 페미니즘??

1991년 5월,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났다. 여느 집이 그렇듯, 적당히 가부장적인 할아버지와 이전 세대보다는 좀 더 평등하고 열린 마인드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고, 초등학교에서는 활발한 남성들이 그러하듯 축구를 좋아하고 반에서 회장 부회장을 맡으며 지냈다. 그리고 남중, 남고를 나오면서 청소년기 나의 세상에는 '여성'이란 단어와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점심시간이면 운동하러 나가고, 더우면 옷을 훌렁 벗은 채 수업 듣고, 야한 얘기는 뭐 공공연히 해도 상관없으며, 목소리 크면 땅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세상 속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이런 내가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 부터였다. 처음 페미니즘을 접했을 때, 새로운 눈이 생긴 기분이었다. 원래 보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고나 할까?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사회적인 차별을 보게 된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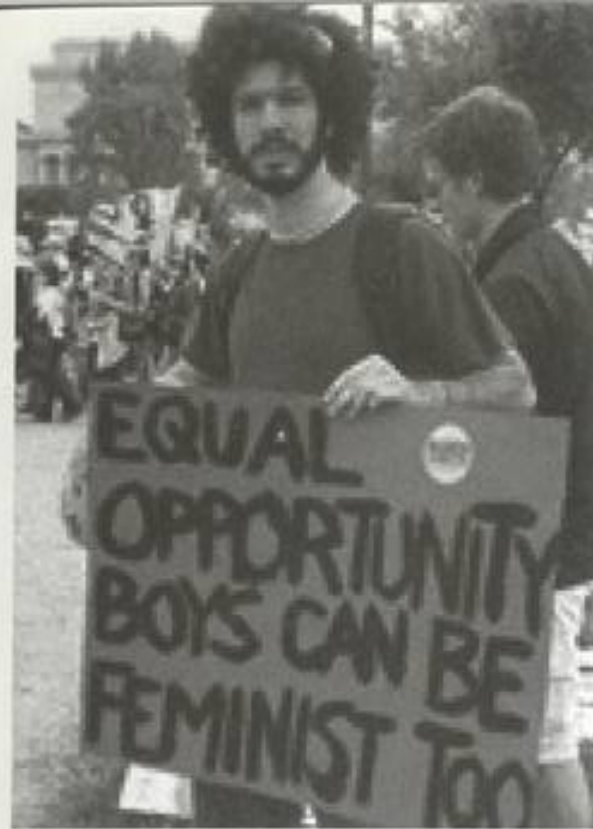
왜 엄마는 회사일도 아빠보다 더 힘들게 하는데,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집안일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 왜 내 여자동기들은 술자리에 늦게까지 있지 않는 거지? 다이어트 한번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밥 먹을 때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은 내게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게 했다. 더군다나 남중, 남고를 거치며 남성들의 눈으로만 세상을 봐왔던 내게 이러한 경험은 정말 새로운 그 자체였다.

하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여성주의를 공부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부딪히었으며, 남성인 나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공동체에서 만든 반성폭력 내부규약 중 대부분이 나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뭐 이런 거까지 성폭력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전에는 장난스레 치던 성적인 농담도,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도, 여자 동기나 후배들과 장난치다 신체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조심해야 하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축구를 좋아하고 목소리 자체가 큰 것'까지도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무심코 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어느 순간, 페미니즘은 '나의 어머니를 위한, 내 주변 여자 친구들을 위한' 학문이라는 것이지만, '남성인 나'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부정하는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렇게 페미니즘이 불편해지고 있을 때 즈음, 나의 첫 연애가 실제로 끝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크게 자리 잡았다.

물론 연애가 실제로 끝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동안은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생각이 반갑이 느껴졌던 적이 있었다. 당시에 나는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 스스로를 잠정적인 가해자로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면서 자기검열을 많이 하고 있었다. 어떤 나의 모습은 첫 연애하는 미숙함과 합쳐지면서 매우 답답하게 흘러갔다. 손을 잡는 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내 의견을 관하게 말하고 말을 놓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1년 남짓이 지나



고 상대방은 친구일 때와 다름을 느끼지 못하겠다며 떠나갔다.

당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던 나는 무언가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은 페미니즘이 되었다. '네 녀석만 아니어도 눈치도 덜 보고 더 자신 있게 행동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페미니즘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려 했고, 남성인 내가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다시 지난날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즈음, 페미니즘을 다시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일이 있었다. 총아학 생의 선거가 있던 작년 11월이었다. 당시 한 선배가 일방적으로 학우들에게 비방을 받았었다. 권력, 피해 의식에 찌든 사람들, 시대착오적인 사람들 등등. 개표가 진행되던 새벽, 천하게 지내던 한 후배가 눈을 뜨고 보이며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공약들 같은데... 왜 페미니즘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렇게 욕 먹어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불편하고 나를 검열하게 하는 것, 그럼에도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자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다시 부여잡았고, 반년이 지난 4학년의 5월, 과를 농활에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주의적 공동체의 필요성을 열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날 들은 질문. "선배, 근데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성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들다. 하지만 감히 말하자면, 남성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사회 속에서 남성이기에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지위를 인식하고 내려놓는 것, 아직까지 존재하는 여성차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성적 평등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그 과정은 지금까지 구성되어온 자신의 남성성을 문제 삼고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이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을 의미하진 않는다.

물론 페미니즘을 접하는 남성들이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페미니스트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페미니즘은 앞선 경험들처럼 나를 고통케 만들긴 했지만, 돌아보면 페미니즘 덕분에 내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던 경험들이 많았다. 많은 문제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후배로부터,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네! 고마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농활에서 소소한 페미니즘 실천으로 어머니께 처음으로 차츰함과 앞으로의 다짐을 말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2년간 나를 조금은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남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등등.

역사상 수많은 운동들이 그 단사자들만의 싸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던 흑인 인권운동도, 장애인들의 싸움도, 그들과 함께하는 백인, 비장애인들의 주체들이 함께 있었다. 페미니즘 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여남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체들, 그 책임을 모두 여성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여성을 넘어 남성 역시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가 될 때, 그리하여 함께 평등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여남 평등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남성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아니 되어야 한다.

가산점

성재기씨의 죽음, 그 이후

기고/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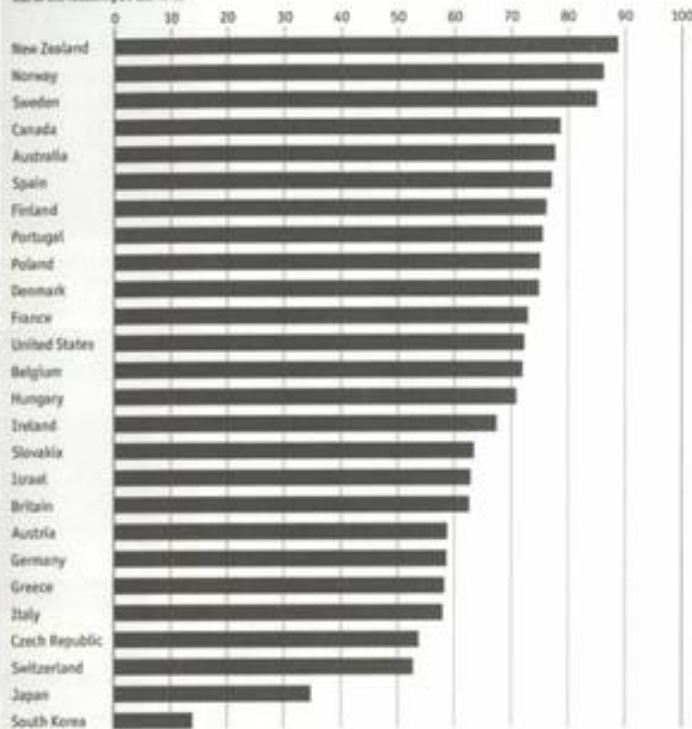
2013년 7월 25일, 한 사내가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다. 자신이 이끌고 있는 '남성 인권 단체'의 재정난을 호소하며, 1억을 모아달라면서 한강 다리에서 투신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나선다. 그의 생각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폰이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 않고 다음날 투신 퍼포먼스를 벌인다. 무슨 무야무야 소식도 없이 예만 태우던 그는 결국 사흘 뒤 씨름한 주검으로 발견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성재기. 그리고 남성연대의 이야기다.

그가 왜 투신 퍼포먼스를 펼쳤는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환경이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그의 죽음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비극적 퍼포먼스를 회화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의 이 무지마치한 퍼포먼스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의 죽음 이후다.

일단 그가 죽자 많은 남성들은 그의 죽음을 미화하며 여성부 폐지 여론에 불을 붙였다. 여성 대통령의 시대에 여성가족부가 뎀발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성재기는 '남성 역차별이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오로지 남성인권을 위해 힘쓰다 스스로 산화한 열사'로 포장되고, 모든 답론은 '기승전 여성부폐지'로 종결된다. 여기서 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성재기에 대해 비판하면 군대도 안 다녀온 주제에 말만 많은 감치녀, 콤플렉시스트로 낙인찍힌다. 어쨌든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남성 스스로를 여성보다 지위가 낮다고 지인하는 것일 테다. 과연 그럴까?

Glass-ceiling index

Weighted average of five indicators*, 2011 or latest, 100=best for working women
Out of the following 24 countries



*Weighting of 25% for: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female labour-force participation;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women in senior management as % of total. Weighting of 8% for: net child-care costs as % of average wage

Sources: OECD, ILO, Catalyst, The Economist

www.oecd.org/glassceiling

올해 초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그래프다. 여성의 지위 향상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수치로 내놴더니, 한국이 아주 독보적으로 꼴찌였다는 얘기가. 구체적인 조사 결과로 파고 들어가보면, 차이는 더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문대 졸업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58%를 기록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4년제 대학 졸업 여성의 고용률은 62%로 역시 OECD 국가 중 최저치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 역시 60% 중후반대로, 70% 후반을 상회하는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혹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그럼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뭐가 못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는 얘기인가? 만일 당신이 우리 주변의 어머니, 누나, 여동생들이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까지 생각한다면 이견 좀 아닌 것 같다.

자, 각고의 노력 끝에 저 좁은 여성 취업의 문을 열었다. 취업한 후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게 되었다. 출산후가 1년간의 공백이 생긴다.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가정의 축복이 되어야 할 출산후는, 기업이란 현실에선 눈치 살살 보며 내밀어야 하는 부끄러운 썩잇장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어찌어찌 눈치 보아가며 출산을 해서 애가 세상에 나왔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애 낳아 뉘더니 이제 맡길 곳이 없다. 보모를 붙이자니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어린이집 보육원 시설은 태부족이니 애 안심하고 맡긴 후 일하려 갈 수가 없다.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자니 또 눈치 보이고, 이래저래 눈치보고 속앓이 하다가 결국 많은 여성들이 30~40대쯤 일을 포기한다. 그러다가 애가 크고 교육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40대 후반 즈음해서 다시 노동 시장으로 나오는데, 나이 많은 여성을 정규직으로 써줄 직장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직장 계속 다녔으면 승진해서 고위직 올라갔을텐데, 결국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는 수많은 시선들이 능력 있는 여성들을 사회 변두리로 내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한 알파걸들의 스토리만 TV로 보고 듣고, 여성들도 충분히 사회로 진출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그 소수의 알파걸들을 보기 전에 당장 우리 주변의 다수의 여성들을 보라. 과연 우리 사회 속에서 여성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연대의 주장은 메아리를 얻는다. 남성연대는 항상 남자가 약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얘기다. 남성 역시 이 정글 같은 한국 사회에서 20대엔 취업 어렵고, 30대엔 연재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40대쯤 정리해고로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면서도 가정의 생계부담을 완치 않게 전적으로 지게 되는 약자다. 하지만 남성연대가 진정 분출해야 할 약자의 울분은 같은 약자의 입장인 여성을 향한 것이 아닌 이 사회 전반의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세태를 향했어야 한다. 약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사회적 구조는 직시하지 못한 채, 엉뚱한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변죽만 울리는 약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이 일부 문제적 남성들이 남성들을 억압하는 주체를 사회가 아닌 여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구조는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으니, 당장 앞에서 눈에 보이는 여성들이 그런 것처럼 착시하게 된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혐오 현상, 과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여성이 남성을 억압하는 사례를 들여보자. 일부 여성들이 SNS에 올리는 군대간 남성들 비하발언, 더치페이하는 남성들 비하발언, 더치페이를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여성들,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들에 남성들은 열폭하고, "한국 여자들은 왜 그럴까?" "너 김치녀니?"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

고, 남성연대에 환호하기 시작한다. 성난 가슴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 주변의 여자들을 다 저렇게 남성을 비하하고, 남성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한다면? 저런 여자들 있으면 당신들이 알아서 저런 여자 만나지 말고 더치페이하는 게 낫네 만나면 될 일이다. 지금 이 개인적인 사례들을 모든 한국 여성이 그렇다는 말로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생산해낼 뿐이다. 그렇기에 성재기의 죽음은 성재기 개인에게도 비극이었

으나, 사회 전체에도 비극이었다. 무의미한 논쟁을 촉발시키면 당사자의 비극적 죽음으로, 그가 주장하던 무의미한 논쟁은 더욱 확대재생산 되었기에, 사회의 약자를 가르는 기준선인 기준선은 성별이 아닌 불평등한 소득 격차를 부추기며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구조다. 이 약자의 처지를 바꿀 가장 좋은 방법은 뻔한 말이겠지만 결국 연대다. 남녀 서로 김치녀네

놓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약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사회 구조는 보지 못한 채 소모적인 혐오 감정만 부추길 뿐이다.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고 자신들을 힘겹게 하조를 직시하고,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연대해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닐런지, 여기서 한 마디만 더 형언

해본다면 여성주의에 대해 조금 알아 가는 것도 자신을 억압하는 사회의 구조를 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남성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의외지는 비용 부담과 책임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여성에게는 자신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를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성주의는 약자를 재생산하는 사회 구조를 직시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에 간혀 억압받는 자신을 발견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이 처음부터 깊이 배우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같은 얼치기 여성주의 학도와 함께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고민하며 생각을 나누어 보지 않았는가?

한국 여자들은 왜 그럴까? 타...
14시간 전
15시간 전
http://news.nate.com/view/20131007n015

작장 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고정관념

문건보고를 할 줄 모른다	82.8
자기가 잘못이니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변명하려 한다	82.2
자리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아래 3주 보는)	81.7
자신에 따라 정해진 일만 하게 한다	81.5
직장 동료보다는 '여자'로 행동하려 한다	80.1
복은 입을 잘 하지 않는다(아래 3주 보는)	78.9
직업의식이 부족하다	78.6

【선 여성시대】**100:100**남자들에 말하는 '사...
news.nate.com

한국 여자들은 왜 그럴까? 14시간 전
일부 여성들이 말하는 남자의 착한은....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716명이 좋아합니다.

facebook



너 김치녀

좋아요 163

커뮤니티
최근 실감했던 여성 편향적인 사회를 꼬집고자...
누리라는 내가 보이든 어떻게 말해주세요.
●나 김치녀입니다!

내 소개 - 편집 권한

군대에서 잘 써오라네 하는...
163



163

쉬어가기 ①

그림으로 보는 페미니즘 이야기

여성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 들여다보기



자화상은 남성의 전유물?

▶자화상을 주로 그렸던 렘브란트는 후에 의식있는 인간존재 탐구의 결과라는 평을 받는데 비해, 똑같이 자화상 위주의 작품을 그렸던 소포니스바 앙귀솔은 여화가라는 이유로, '겨울을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혹평을 받는다. 여성이 자화상의 주인공이 된 그림은, 작품으로 인정받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가시목걸이를 한 자화상, 프리다칼로, 1940



여성의 시선으로 그림을 보다.

▶사진의 여성은 남성에 의해 대상화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 미술작품에서 언제나 여성의 시선은 밑을 향해 있었으며, 여성의 몸 역시 남성에 의해 보여지는 몸으로서,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졌다 (위 그림의 뒤에서 지켜본 그녀의 등이 그것을 말해준다)

아침화장, 루도다 세이키, 1895



◀이런 기존의 그림과 다르게 프리다 칼로는 그녀의 자화상을 선혈이 두뿔하게 그림으로서 그녀의 몸을 에로티시즘으로부터 멀리하고, 출산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나타내며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의 존재를 알려내는 예술작품을 선보였다. 프리다 칼로의 이러한 예술적 특성으로, 훗날 그녀는 페미니스트의 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나의 출산, 프리다 칼로, 1930

프리다 칼로 Frida Kahlo 1907-1954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상징주의와 멕시코의 토속 문화를 결합한 화가였다. 벽화주의 운동의 세계적 거장인 멕시코의 대표적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이기도 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재기를 타고 났으나, 소아마비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프리다 칼로는 초현실주의 계열 화가 가운데 자화상에 가장 집착했다.



성평등센터와 총학생회가 도무지 왜 존재하지 모르겠는 당신에게

참지리안경

8월 중순, 중도 앞에는 자보가 붙었다. 성평등센터가 인권과 성을 유린했다는 글자였다. 조금 더 자세히는, 성폭력 신고인을 피해자로 그리고 피신고인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학칙이 무고죄와 배치될 수 있으며, 법적인 권한이 없는 -법적 전문성도 없는- 성평등센터와 그 상담원이 아닌 사법권으로 다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성평등센터 관련한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흔히 '논지달 사건'으로 불리는, 논지달 처마에서 남학생학우들이 비를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역시도 성평등센터를 입에 오르내리게 했다.

각각의 사건들은 '성평등센터는 왜 존재하나?', '학칙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부재했다. 비단 이 두 가지 질문뿐만 아니라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에게 학생회비 주기 싫다는 불만을 필두로 총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자치규약이 너무 여성 편향적이라는 의견까지 학내 여성단체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제도들에 대한 물음표들이 학내에 던져져있다. 누구도 답하지 않았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과 제도들이 만들어진 맥락을 학내 여성운동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946 연희대학교 최초 여학생 10명 입학
1948 여학생들의 친목단체 녹양회 조직
1950 여학생수 증가로 여학생 지도 면담 여교수 임명
1955 논지방 신축
1956 행정분부에 여학생처 출범

1950

1960

1970



▲ 2004년 연세대학교 남가주여성 동문모임 녹양회는 2,000달러를 남가주밀알선교단에 전달했다.

〈녹양〉 창간호 ▶



#1. 성평등센터, 총여학생회는 어떻게 출범했나

연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평등센터는 애초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원이 굉장히 적었던 대학 현실 속에서 여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행정부서로서 존재해오다 개편된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 하위부서인 여학생부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소외된 여학생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70%의 투표율과 9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며 1988년 3월 출범했다. 성평등센터는 너무나도 적었던 여학생 수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 지금 심지어 여학생들에게도 외면 받고 있는 총여학생회가 어떻게 열렬한 지지를 얻어 탄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8·90년대 대학가는 학생운동의 정점에 이르렀으며,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줄을 이뤘는데, 그 일환으로 여학생을 성고문하는 일 역시도 존재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여성문제라기 보다는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제기되었다. 공권력에 의해 가해진 성고문 사건을 재외고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은 대학 내외에서 끊이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전체운동 하위에만 위치시키며 '여성'들이 고유하게 겪는 문제들, 어려움을 은폐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여학생들의 소외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학칙'과 '성차별센터'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8월 말, 중앙도서관 앞에 붙었다.

창간
1971 연세대학교 (월호)와 (여우학사) 간행
학원 자율화조치에 따라 여학생
1980 대표기구인 여학생부로 개편
여직원 결혼 후 6개월 내에
1981 자진 사퇴하는 성차별적 규정 폐지

1984 성폭력 신고전화 설치
연세출신 여성 언론인 모임 발족
1985 여성연구소 설립

1988 총여학생회(4) 탄생

성평등센터의 역사

총여학생회의 역사

권인숙 씨 성고문 사건 부분 승소

2억요구...은폐조작 불인정으로 3천만원 지급

된 목소리를 듣는 독자적인 공간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요구되었고, 우리학교 총여학생회의 출범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해왔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여학생 수가 적지도 않고, 어느 정도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성평등센터와 총여학생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는 물음이 다시 던져진다. 지금까지 단체들이 학내에서 벌여왔던 활동들을 보면서 지금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성학중앙연구원의 역사

총학생회의 역사

2004 연세 여성연론회의 개최

2003 새터 반성폭력 내규 1차 개정
교수 성폭력 토론회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만들기' 자료집 발간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

2002 나를 움직이는 내규, 기본훈은 새터 (하하
호호 새터내규) 발간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첫 번째
토론회 (그들의 얼굴에 피아를 던지라)

2002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
교수 성폭력 토론회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만들기' 자료집 발간

2002 여성연구소 통합하여 여성인력개발연구원 설립
39대 총학생회장 여학생 당선
14대 총여학생회장 여학생 당선
23대 동아리연합회장 여학생 당선

총 예방교육용 비디오 제작
성폭력 및 성폭력 신고 프로
여학생 불만 신고전화 개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2000 여학생처 내 성폭력 상

2000

1999

1998

1997

2000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
고 당시대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
안안 탄생

1999 여성자치연합 주도의 제2회 여성제
여성학 자치도서관 폐마나리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당선

1998 beyond 자치규약 제정 작업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탄생
여성주의 총여학생회가 낙선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beyond 탄생

1997 여성자치연합 발족
여성자치연합 주도로 제1회 여성제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당선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고안하는 사회대 자치 공동체



#2. 학칙과 실명공개자보, 왜?

우리가 학내에서 마주하는 여성주의 관련
한 대표적인 제도로 과/반 내규와 학칙을 들
수 있다. 연학에서 볼 수 있다시피 1999년 반
성폭력 학칙 제정과 공동체의 약속인 자치
규약을 공약으로 결고 나온 총여학생회가 당
선되면서 수차례의 논쟁과 수정을 거쳐 지
금까지 전해져오고 있다. 제정된 지 채 20년
도 되지 않아 인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되
는 이 제도들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 이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3년 서울대 신교
수 성희롱 사건과 학내실명공개자보를 설
명해야 한다. 교수가 조교를 성희롱 하여 사
회적으로 굉장하 큰 여파를 불러온 이 사건
은 성폭력 가해자는 인격에 미달되는 파렴치

한이거나 성격장애를 가진 비정상인일 것이라
는 기존의 인식을 크게 깨트렸다. 이를 계기로
'평화로운 듯한' 대학에서 사실은 은밀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을
발하고 바꾸어가려는 적극적인 흐름이 대학가
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신교수 사건이 학생-교수 간 성폭력 사건이
었다면, '학생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성
폭력 또한 드러내고 공동체를 반성폭력적으
로 바꾸어 가는 활동들이 활발해진다. 대표적
인 성과물이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
자보' 이다. 실명공개사과자보는 가해자가 아
니라고 잡아매면 그만이던 성폭력을 피해자가
'피해' 및 '사실' 로써 드러내고 피해로
'인정' 받는 수단으로 있어왔다. 이는 그동
안 술자리 비화로만 존재하던, 피해자의 기억
속에서도 '잊고 싶은' '어쩌면 내 탓이었
던' 일을 처음으로 '가해자가 가한 폭력'
'성폭력 사건' 으로 의미화 하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학 내 수
많은 여성들에게도 공개된 성폭력 사건의 내
용과 그에 대한 해석을 접하면서 자신의 경험
을 재해석하고 나아가 이를 드러낼 수 있는 긍
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처럼 가해자실명공개자보는 성폭력이 단
지 '외부'의 권력자가 저지르는 도덕적으
로 나쁜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폭
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으며,
왜 성폭력이 문제이고,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

는 공간, 피해자에게 친화력을 갖는 공간을 갖
기 위한 토론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왔다.
하지만 학교와 교수 없는 자치적 해결이 여
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면서 '학칙' 을 통해
개별 성폭력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제도적
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는 학내 성폭력 문제
가 단지 학생공동체 구성원을 뿐 아니라 이를
예방하지 못하고 방조한 학교에도 책임이 있
음을 분명히 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 또한
갖고 있었다. 또 다른 노력으로는 자치규약이
있는데, 우리학교에서도 2000년 총여학생회의
주도로 새터 반성폭력 내부규약과 학칙을 구
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통과시켰다. 학칙이
보다 제도적이고 학교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
향이었던다면, 자치규약의 경우 학생 공동체 내
의 책임을 인식하며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바
꾸어가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었다. 자치규약
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해결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지금, 학내에는 자치규약도 거
의 소실되었으며 가해자실명공개자보를 비
롯한 학칙은 구성원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역풍을 맞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이제
평등해졌고, 성폭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일까, 분명 예전보다 상
황이 나아진 것은 맞지만, 수시로 들려오
는 성폭력 사건들에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가져다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칙과 자



치규약은 우리의 질문을 풀어내는 계기가 되
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학내 여성단체들이 해왔
던 활동들이 제도로만 남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제도가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여전해도' 우리에게 필
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운동'
이 학내에서 점점 소실되어 왔다. 학우들과 소
통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지
를 함께 토론하며, 성폭력 없는 공동체를 만들
기 위한 노력들이 줄어든 학내에서 학칙과 내
규는 본래의 의미는 오간데 없이 암암의 제도
만으로 남았다. 즉, 단순히 사람을 처벌하는
기제로만 작동하는 자치규약과 학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다.

2006 월경공감제 시범운영
2007 성리결석제 공식 제도화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 (아랫목) 자료집 발간



성평등센터의 연

총여학생회의 연

2006 1기 연세 여성 리더 양성 action plan 공모전 시행
1기 연세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career-strat 발대식
2009 여학생처에서 학생복지처 소속 여학생센터로 조직개편

2010

2012 커리어 디자인을 위한 연세 여성과의 relay talk
여학생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학기말 논지방 파티 진행
학생복지처 여학생센터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성평
센터로 통합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험 세칙 개정

#3. 학내 여성주의 단위들은 무엇을 해야하나

그렇다면 2013년 연세대학교에서 여전히 이러한 자치규약과 학칙이 필요한가? 답은 그렇다이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내부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들이 모두 '미친' 사람이 많아서라고 하기에 세상에 미친 사람을 만든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야기들. '남성의 성욕은 자연스럽고 참을 수 없는 것이니, 여성들의 밤에 늦게 다니지 말고 품행을 조심해야 한다.' '여자의 NO는 한 번 평가해보는 것이다' 등 많은 편견과 잘못된 성에 대한 관념이 사회에, 그리고 학내에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제도로 '만' 남은 자치규약과 학칙은 단순히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는 금기 그리고 행동으로 했을 때 처벌을 한다는 두려움 혹은 비아냥으로 학내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수많

은 여성단체들이 자치규약과 학칙을 제정했던 이유는 처벌을 통해 여성들 스스로를 지킨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 남성과 여성의 책임일자리와 행동들을 함께 고민하며 공동체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 역시 존재했다.

반성폭력적인 그리고 남녀가 평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서로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에 부딪히며 어렵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를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기에 지금 학내 여성단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치규약과 학칙이 처벌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다시 학내에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운동'이다. 반성폭력 운동의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법을 관장하는 국가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생활세계와 시민사의 곳곳의 현장들이어야 한다. 학내 곳곳에 이러한 운동을 만들어갈 때야만 총여와 성평등센터 존재의 정당성 그리고 자치규약과 학칙의 필요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1) 연희전문학교에서 연희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입학 자격을 남자뿐만 아니라 학칙 없음
- 2) 여학생들의 교양을 높이고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휴식을 위하여 신축.
- 3) 이때 여학생부는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었고, 총학생회에 참여함과 동시에 여학생처장의 지도로 독자적 활동
- 4) 1987 총학 여학생부가 갖고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소외된 여학생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70%의 투표율과 9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며 1988년 3월 출범
- 5) 대학내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성폭력 신고전화 여학생처 내 설치
- 6)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 여성단위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반을 둔 여러가지 여성주의 문화활동을 기획했다.
- 7) 여성학 책을 대여해주는 도서관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학 연구 공간, 생활공간으로서의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의 활동이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9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학내 여성운동의 가치 있는 활동 기록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일리는 작업들이 페미니리 자료집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고, 여성학 강좌 개설, 세미나 커리큘럼 발간,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지금도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에서 여성학 도서관 페미니리에서 연세 여성주의 운동에 관련한 과거의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 8) 여성주의 자치단위들과의 연대와 지원, 반성폭력 학칙 제정과 자치규약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출발한 11대 총여학생회는, (연세성폭력추진위원회)라는 자치단위들과의 연대체를 통해, 이제까지 학내 여성운동 진영에서 작업해왔던 반성폭력 학칙에 관한 목소리들을 모아 학칙제정과 공동체 모두의 약속인 새터 성폭력 내규 작업을 진행, 통과시켰다.
- 9) 여휴반만은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된 학내 공간 속에서 여학생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학내 여학생 휴게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생긴 모임이다. 1년동안 여학생 휴게실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작업을 통해 사물함이 들어오면서 위협받은 중앙도서관 6층 여휴를 지켜내고, 사회대 상대, 이과대, 문대 등의 여휴를 조금씩 바꿔나갔다. 여성제에서는 '민주광장으로 나온 여휴'라는 주제로 설치물을 전시하기도 했다. 12월에 발간한 자료집에서는 학내 여휴의 현재 상황, 여휴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글, 다른 학교 여휴 이야기 등을 통해 여학생 휴게실의 여성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 10) 내규 제정 후 세 번째 해인 2002년에는 14대 총여학생회, 문대 여성주의모임 모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비온도와 함께한 2002 새터 반성폭력 내규 기획단에서 자료집을 발간했다. 내규에 대한 설명, 기존의 놀이문화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놀이의 제안, 여자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등을 담았다.
- 11) 총여학생회, 법과대학생회, 사회대학생회, 문과대여성주의모임 모반에서 함께한 공청회에서는 당시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의 문제점과 개선점,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12) 몇 년간 이어져왔던 반성폭력 학칙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운동을 이어받아, 교육부성정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반성폭력 학칙을 학생회 개정안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반성폭력 학칙은 성폭력대책위원회, 실무소위원회 등을 거쳐 2004년 11월 25일에 개정되었다.
- 13) 설문조사와 함께 <여성교육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월경공감제>란 자료집을 발간하고 월경공감제 시범운영을 하였다.
- 14) 2007년 2학기에 성리결석제가 공식 제도화 되었다.
- 15) 방치되어온 여학생 휴게실 조사와 공간의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던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아랫목)이 1년의 활동을 정리하며 12월 달에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반성폭력 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9월 5일 (월) 12:00 • 장소 :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솔직! 담백! 하게
기름기 짝뻔

우리들의 여성주의 자치규약

아몬드

매년, OT 때 마다 의례적으로 치러지는 여성주의 발제, 새터 때마다 의례적으로 만드는 (여성주의) 자치규약, 새터에서의 솔자리가 시작되면 떨어지는 자치규약, 여성주의에 대해 물어봐도 논지방에 가면 잡혀 간다는, 풀페미라는 예기 밖에 하지 않는 선배들, 그 와중에 일어난 논지방 사건 예선, 여성주의가 단순히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또 총여학생회는 무엇을 하는 기구 일까? 자치규약/여성주의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수록 자치규약과 여성주의는 밭 그대로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쓸모도 모르겠다. 아 삼합이 우리의 삼합인 것 같다.

풀은 연세대 사회학과와 조그마한 학회이다. 풀음도 연세대 내의 단위이기에 앞서 말한 상황 속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즉, 여성주의에 대해 잘 모르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투성이었다. 그렇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문재를 굳이 여성주의 시각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 분명 여성주의적으로 다루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푸르미언들은 지금 과반 문화를 돌아보며 '공동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곤 했다. 그것은 과반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 지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비장애 이성애자 남성을 위한 문화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FM/AM.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여성성(소극적, 상냥함, 연약함, 작은 목소리)을 갖추길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싶은 여성은 FM과 같이 떨어지는 목소리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행사를 최선을 다해 할 수는 없다. 그 여성이 용기가 없어서, 내성 떨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FM은 여성성(여성에게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성격을 요구하는데 과반에서 여성으로 남고 싶다면 (일정정도의) 여성성을 갖춰야 하기에 그러는 것이다. 과 반 행사가 계속해서 FM을 요구할 때, 그 여성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 받는 느낌일 것이다. 결국 FM/AM에서 몸을 띄울 수 있는, 잘 논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너스레를 떠는 남성인 것이다. 실제로 과에 남는 사람들을 분석해 봐도 남성이 많이 남고, 흔히 "엔 여자도 아냐 애가 무슨 여자냐"하는 여성이 남는다. 과는 과연 그들(남성성+비장애+이성애)의 정체성을 가진 그들(그들)만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다. 과반공동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과반 행사에 주체적으로(의무가 아닌) 참여하기 위해서 여성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사회학과에서 만든 있을 줄 알았던 그런 것들-예컨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나 권위주의 없는 선후배 사이-을 볼 수 없었

<언어>

- ① 10개월이 동안 성적차이화가 있음을 지적하기
- ② 10개월 동안 성적차이화가 있음을 지적하기
- ③ 여성이 원한이 무엇이든 볼 수 있는 것 성적차이화 지적하기

<다양성>

- ① 여성이 하는 것을 성적차이화(여성성)로 규정하고, 규정하는 위압을 지적하기
- ② 과반에서 여성이 원한이 없지 않다
- ③ 풀은 다름의 의미에 맞(맞)을 한다

다....."라며 고민했던 불편함들은 대부분 여성주의에서 계속해서 다뤄왔던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여성주의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의 권리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권리 간 대립으로만 남았다. 즉,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과반 문화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는 반문이었다. 그리고 대립이 지속되는 중에 여성은 점점 사라졌다. 여성주의를 조금 일찍 배운 12 푸르미언들은 이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꼈고 여성주의를 함께 공부할 것을 제안했다. '젠더의 문제(여성성과 남성성)'라는 여성주의적 언어로 불편함을 풀어냈을 때, 문제를 명확히 볼 수 있었고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사라지는 이유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주체적 삶을 지향하는 여성주의는 과내, 학내에서 여성이라는 주체를 세워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풀음에서 만드는 여성주의 자치규약은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했다. 자치규약에 있는 여성주의적 언어를 통해서 과 반 문화 속 여성을 새롭게 보는 것이다. 즉, 풀음 내에서 여성주의를 아는 척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풀음 밖의 공간에서도 여성주의적 고민을 이어가게 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자치규약인 것이다. 예를 들면, 풀음 내에서만 러브샷, 혹은 '사겨라'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동아리 MT에서, 더 넓게는 폐북 등에서 '왜 러브샷을 하는가, '사겨라'라는 말을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다.

풀음 내부에서 여성주의 자치규약의 필요성도 언제나 존재한다. 풀음에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각각의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다르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이 들어온다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여성주의 자치규약은 여성주의에 대해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 매개체,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부장제라는 그물을 넘어 행복하고 자유롭게

풀음은 '사실 삶 속에서 여성주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방황을 하는 중이다. '여성주의는 지나치게 여성만 생각하지 않나?'라는 고민도 있다. 고민과 방황을 조금이나마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자치규약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성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이 담긴 '여성주의-카더라'가 아닌 우리가 직접 공부하는 기회를 갖고 싶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여성주의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매개체로서 자치규약을 선택했다.

그렇다. 풀음은 어떤 한 쪽을 억압하여 행복한 척, 자유로운 척 하며 사는 세상이 아닌, 단순히 (여성도)함께 주체로 서며 진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지향할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상성, 혹은 기준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정상성과 기준을 새롭게 써 나가는 것이다.



FM/AM자리에서 여성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느낌을 받기 쉽다.

쉬어가기 ②

성적의사결정능력 테스트

- 1 좋아하다가 싫어지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 2 나는 성적 욕망이나 지식에 대해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1 2 3 4 5
- 3 상대방에게 화났을 때, 고마울 때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5
- 4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어 감정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1 2 3 4 5
- 5 상대의 일반적인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1 2 3 4 5
- 6 나는 원하지만 상대가 싫다고 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한다. 1 2 3 4 5
- 7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데, 상대는 좋아하지 않는다며 헤어지려할 때,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1 2 3 4 5
- 8 나는 나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 그대로 인정한다. 1 2 3 4 5
- 9 나는 나에게 맞는 피임법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 10 성적 욕망이 생기면 함께 나눌 상대가 없어도 나를 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 11 성관계 의사 없이도 상대와 숙박여행을 함께 할 수 있다. 1 2 3 4 5
- 12 내 감정과 느낌이 소중한 만큼 상대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다. 1 2 3 4 5
- 13 상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내 감정을 과장하거나 왜곡되게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 14 합의된 신체적인 접촉(예, 키스)을 하는 중에 내 맘대로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 15 상대가 제안한 신체 접촉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 2 3 4 5
- 16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게 먼저 제안할 수 있다. 1 2 3 4 5
- 17 나는 연애를 할 때 상대를 '소유하겠다'거나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 18 내가 고백했을 때, 상대가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해도 안타깝긴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러움은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 19 상대가 취해서 정신이 없을 때를 기회로 내가 평소 원했던 접촉을 시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1 2 3 4 5
- 20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제안할 수 있다. 1 2 3 4 5

최소한 점수를
전부 더해보세요 :-)

나의 점수는 점

성적인 만남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나요? 성적의사결정능력 테스트를 통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상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즐겁고 행복한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요!

93점 이상 : 청색신호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상대의 감정이나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군요. 앞으로도 열심히 자신의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다면 계속해서 청색신호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80-92점 : 황색신호

노력하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감정과 의지에 많은 변화가 있네요. 성적의사결정능력 향상은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파악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감수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세요.

80점 이하 : 적색신호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당신!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당신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또는 임신/낙태 등의 피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적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해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노력해보세요.





충격! 앨리스 비밀회합 녹취록 당신에게 페미니즘이란?

같이 여성주의를 주제로 활동하면서도 어쩌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기 오기 전엔 뭐하고 살았는지, 뭐가 제일 좋고 뭐가 힘든지 등등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속 시원히 다 나눌 기회는 생각만큼 쉽게 오지 않는다. 회의 도중 수다 도중 가끔씩 드러나는 각자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아예 한 지인의 집을 빌려 몇 시간 동안 '끝장 토크'를 하고야 말았다. 끝장 토크의 결과를 스포하자면 서로에 대해 더욱 깊어진 이해와 애정,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마냥 기쁜 감동의 해피엔딩이었다. 여기 그 녹취록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길고 풍부한 이야기가 오갔다. 다음엔 나도 한 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 싶은 분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페미니즘을 접한
계기와 페미니스트로
살면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 있다면?

미친모자장수 작년에 (앨리스)에서 열었던 오픈 세미나를 통해서 처음 접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어렵듯한 불만만 있었는데,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들이 단지 내가 뼈다귀에서 뜯은 생각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불만 지점들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도도새 내가 보기엔 분명 불평등한 세상인 거 같은데도 한참 사회적으로 '골페미'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여성부가 테트리스를 금지시켰다는 무마가 도는 것을 보면서, "페미니즘은 이상한 건가?" 하고 고민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처음 좋은 인상을 가진 것은 고2 때 남자 교생 선생님 덕분이었다.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언어라고 하며 "괴담을 거부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는 안 된다."와 같은 말들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 대학에 와 동아리에서 성을 빼고 이름만 소개하는 선배를 봤다. "뭐지? 뭐지? 이게 말로만 듣던 페미니스트인가?" 하면서 당황했다. (일동 웃음) 그 선배가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을 내밀면서 "이것을 읽고 서평을 써보지 않을래?"라는 권유를 했을 때 "아... 아니요." 하며 거절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거절을 하면서도 더 알아보고 싶은 이질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책만이라도 끝까지 읽고 판단을 하자.'라는 생각과 함께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 치고 싶은 문장이 가득해서 밑줄을 아예 치지 못하겠는 책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았다. 그게 터닝 포인트였다.

미친모자장수 페미니즘이 빛났던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나는 한 순간을 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대신 나는 나름대로 긴 연애를 하면서 그런 지점들을 느꼈었다. 상대방도 페미니즘 공부를 하는데 그 덕분에 서로 페미니즘적인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페미니즘을 몰랐더라면, 그리고 페미니즘을 모른 채 연애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 끝에 "페미니즘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병정 아직까지는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든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성장했구나" 하는 게기들은 없다. 아무래도 늦게 접했기에 고민을 덜한 측면도 있고,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올해 상반기에 엄마와 이야기했었을 때였을 것이다. 엄마와 맥주를 마시다 결혼을 일찍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니 "너희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일찍 결혼하면서 자신의 많은 삶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앞으로 엄마 같은 경험을 하는 여성들이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페미니즘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붉은 여왕 페미니즘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아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들어왔다. 대표적으로는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로 "너는 돈을 벌어야 한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 여자가 독립을 할 수 있어야 좋다."가 있었다. 우리 집에서 돈을 버는 것은 엄마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었다. 엄마가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말하신 것 같다. 이전에 나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평등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1학년 1학기에 '성평등 리더십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도 그냥 시간이 맞아서 듣게 되었다. 그런데 이 수업에서 엄청 많은 것들이 나의 생각들과 어긋났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어긋났던 것이 '오파'였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오파라는 단어에 그러도 집착하는지. 오파라는 말에 무슨 권력이 있어?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중 내 남자동기가 동기가 "너는 왜 선배라는 호칭을 써? 남자들은 오파라는 호칭을 쓰면 좋아해."라는 말을 했다. 그때 "아, 이게 진짜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남았다.



체서 고양이 옛날 얘기로 들릴 것 같다. (웃음) 과거 미화일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총학생회가 지금보다는 많이 열심히 활동했었다. 당시 총학생회에서 총학생회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었다. 당시 이러한 논쟁 덕분에 1학년 내내 궁금함이 생겼었다.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계기는 과반에서의 경험이었다. 과반 학생회를 준비하면서 "왜 여학생들이 과반 활동을 안 나오고 불만해 할까"에 대한 지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같이 고민해보자고 손 내민 사람들이 (앨리스)의 사람들이었다. 세미나를 제안했다. 사실, 여성주의 언어가 설득적이었기 때문에 세미나를 해보고 싶었다기보다는 (앨리스)의 제안에 과반 자치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었다는 신뢰가 있었기에 함께하게 되었다. 세미나를 하면서 책으로 많이 배웠는데, 20년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깨가는 과정은 매번 새로웠던 것 같았다.



페미니즘이 선물한 행복과 어려움은?

도도새 그냥 입상이 많이 행복해졌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 더운 여름날 브래지어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운지 여성들은 다들 알 텐데, 티가 확 나는 옷을 입지 않는 이상은 브래지어를 하지 않으니까 엄청 편하다. 물론 누가 뭐라고 지적하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제 속옷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 같다. (일동 웃음)

책서 고양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남성이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나서 마냥 행복하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것은 여태껏 살아온 나의 삶과의 단절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노력에서 뼈를 쥐는 고민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 세미나를 하면서 페미니즘 감수성이 레벨업한 것 같고, 여학우들을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는 약간의 우월감을 갖다가 외장향 깨지는 이후의 순간이 있었다. 예전대 농활 여성주체를 하면서, 더 공부를 오래해온 내가 새내기 여학우보다 여성주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한번 깨졌었다.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면 다시 원점에 서있다는 고민이 들기도 한다. 물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하지만, 결국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는 생각이 든다. 굳이 말하자면 절대 후회할 것이 아니며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행복이다. 단지 그게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훨씬 크다고 느낀다.

트럼프 병정 나는 남장남고 출신이고 드라마다 영화를 많이 봐서 연애나 사랑에 대한 환상이 많았다. 처음 입학했는데 과 여자 동기들에 대해서, ‘금사빠’ 처럼 많은 설렘을 느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의 대상이나 이성애적 대상으로 보았다 뭐가 다 잘 보여야하고, 매력을 어필

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친해지려고 했다. 그런데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확 깨버리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나와 친해진 모든 여자아이들이 다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남자들이랑 친해지는 것이란 심적으로 다들 것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남자동기들보다 여자동기들이 나를 더 많이 지지해주기도 하고 개내들이랑 더 속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느꼈던 것 같다.



붉은 여왕 앞서 말한 것처럼 가족에 관한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또 이전 연애에 비해서 내 입장이나 내 감정을 타협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가장 좋았던 것은 내가 먼저 “키스할래?” 라고 물었던 것. 그리고 또 행복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 전혀 페미니즘적인 고민이 없었던 후배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 소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행복하다.

미친모자장수 그동안 나는 항상 당차고 발랄하게 살아왔다. 여성인 내가 과거에서 중심이 되는 남자 동기들처럼 시끄럽게 놀 수도 있고 그들 못지않게 발랄하게 사는 것이 부정적 의미가 담긴 ‘나댄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즐거웠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붉은 여왕 페미니즘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부를 하다보면 마치 내가 페미니즘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다가도 또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뭐가 문제지점을 맞닥뜨렸을 때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 내가 페미니즘을 글로만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내가 페미니즘을 함께 고민하자고 이야기해야하는 공간은 대개 페미니즘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주치는 고충이 어렵다. 페미니즘을 매이저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부딪혀야하고 그게 과에서 나쁜이라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부딪힐지언정 수많은 여성들에게 생존의 언어로 사용될 수 있음에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친모자장수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와 같은 여성이고,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페미니즘이 싫어.” 라고 할 때이다. 나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공감시키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가 어렵다. 페미니즘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성을 설득할 수 없을 때 공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남성들을 만날 때 인데, 특히나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남성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페미니즘 공부를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분명히 여성들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더 체득하기 힘든 것도 있고, 체득한 뒤에도 그것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힘들어 하게 된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어떻게 더 와 닿도록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애벌레 나도 남자 후배들이 고민될 때가 많은데, 예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바디도 안 꺼낼 때, 남성의 입장이 되어서 잘 설명하고 싶은데, 나도 남성으로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페미니즘을 모르는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든다. 연인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상대와 더치페이에 대한 고충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
로
산다는 것
은?

애벌레 페미니즘을 무시하면서 갈 수 있을까? 항상 이걸 왜 배웠지? 괴롭다. 라는 것이 페미니스트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일상과 페미니즘이 충돌하는 것이 잠재적인 불안감으로 느껴진다. 그런 부분이 고민이지만 앞으로 계속 해갈해나가고 싶다.

또 걱정되는 지점은, 계속 타협하고 싶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고 싶은 이유를 계속 생각해 보니 남성들에게 연애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유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 사실은 내 스스로 여성인 자신이 겪는 불이익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은, 집안일을 배우고 있다는 것. 그동안 자라오면서 집안 분위기에 의해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내 기숙사 방을 정리해주시던 옛날에서 벗어나 지금은 일부러 엄마가 자취방에 들어오시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엄마가 스스로의 삶을 되찾으실 수 있게 후원금 같은 방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다.

붉은 여왕 가족적인 면에서는 소소한 실천들과 역재력들을 갖게 되는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한다. 내가 페미니즘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리(페미니즘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너털너털한 상태로 걷다가 내 옆에 한 사람이 붙고, 두 사람이 붙고 더 많은 사람이 붙어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친모자장수 나는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앞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공부할 것 같다. 페미니스트로는 끝까지 못 살 것 같다.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도, 완벽히 페미니즘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풀리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다. 페미니즘을 배우면서 많이 편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편한 느낌을 가족이든 동기는 후배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싶다.

책서 고양이 아무래도 피부로 와 닿지 않다보니 차가운 지식으로 많이 축적이 된 것 같은데, 차가운 지식이라 해도 지식은 지식이다. 돈이나 경제, 계급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지식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지 않는다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끊임없는 논쟁과 문제제기 할까 말까의 고민과,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신뢰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간제기하면서 논쟁을 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여성노동자, 아시아나 승무원 권수정씨를 만나다

바지 안돼~
안경 안돼~
여승무원에
별적 권



모았겠지만, 연세대학교 학생들인 모자 장수, 애벌레, 도도새 등과 친구로 지내는 엘리스도 사실 대학생이다. 리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자기의 미래를 그리다가 달력 곁이 났다. 가족과 친구들과도 그렇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직장에서는 다들까 싶어서였다. 리스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리 저리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아시아나 승무원이신 '권수정' 씨와 연락이 닿았다. 권수정씨는 아시아나 전 노조위원장으로서 승무원 경력 20년 가까이 되시는, 전뺨가 굵으신 분이시다! 리스는 약속된 카페로 들어오시는 수정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 수정씨가 들어오자마자 카페가 하나의 비행기로 바뀌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상한 나라에 있는 건지 아닌지 혼란을 겪으며 리스는 수정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리스: 원래 어린 시절부터 승무원을 하고 싶으셨나요?

수정: 전혀~ 중학교에는 공한이 없었어요.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를 몰랐어요. 제 남자친구의 형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아시아나 승무원이였었어요. 그 때 모여가지고 얘기 하다가 저런 직업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때도 알게 된 거지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원래 물리학도를 꿈꿨던...(웃음) 근데 3학년 쯤 되니까 머리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뭘 하고 먹고살지?' 라는 고민을 많

이 하다가 그 여동생을 만났던 것도 생각이 나고 '한 번 해봐도 되게 재밌는 직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정보 없이 영어만 공부 좀 하고 지원서를 넣었어요. 거의 20년 전엔 대부분 그랬죠.

리스: (헉 ㅋㅋ 능력자시네요) 막상 합격한 뒤에 항공사에 가보니 승무원은 어떤 훈련을 하나요?

수정: 기본적으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선 비상 탈출 업무가 '제 1 업무'거든요. 승무원들 업무를 크게 네 가

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승객들 비상 탈출 및 비상시를 지휘하는 거. 두 번째가 구조 관련, 세 번째가 응급 처치.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뭐 테러범이나 권총 쓰는 사람 제어하는 호신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사람들. 남자의 힘이 필요한 곳이 항공기예요.

비상탈출 업무는 90초 내에 전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하는 건데, 웬만해서는 탈출시키기가 힘들거든요. 절차가 잘 지켜져야 하고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해야 하는 뭐 모션들이 다 달
라요. 반사적으로 동작이 나
오도록 훈련을 굉장히 강도
높게 받고 이런 훈련들에 대
부분의 시간이 부여 되요.
또 약속들이 되게 많은 곳이
예요.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계
속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화재 진압 법, 전기 사용 시,
물 사용 시행, 카고에 실리는
물건 관리, (자동차, 석유 등
되게 많이 실려요.) 응급처치
관련해서는 과호흡, 복통, 당
뇨병, 임신, 출산, 사망도 알
아야 해요. 그런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이런 일을 안 겪고 가면 좋은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승객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승무원이 책임 져
야 하는 거잖아요.

리스: 안전이 세 파트네요?
그럼 서비스 훈련은 어떤 게
있어요?

수정: 그걸로, 안전이 세 개
인데 우리나라 항공에선 서
비스를 훨씬 더 중점적으로
가르쳐요. 입사에서 8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받는데 8시
부터 30분간 계속 인사 수업
을 해요. 인사 방법, 표정 등.
그리고 서비스 모션들을 배
워요. 손(삿대질), 이거 절대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승원이
안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일 한 뼛수에 따라서 비즈
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업무를 차례로 배우게 되
는데,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모든 일이 집약되어 있
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퍼
스트는 많아야 승객이 10명
이거든요. 이코노미 클래스
는 한 승무원당 승객 사십 명

가까이를 서비스를 하는 데
비해 퍼스트는 한 승무원이
세 명을 담당하거든요. 그러
다 보니 퍼스트 클래스에서
는 와인의 품종, 치즈의 종류
도 설명 드려야 하고 또 말하
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는 대
화를 해야 하거든요. 골프에
기나, 정치, 음악가 등등, 어
떤 그들 회장이 탄다는 공지
가 뜨면 그 회사에 대해 인
터넷 뒤져서 공부해야 해요.
나라별 특성, 유의해야 하는
것들도 (손사용 방향 등) 관
장히 많죠, 되게 복잡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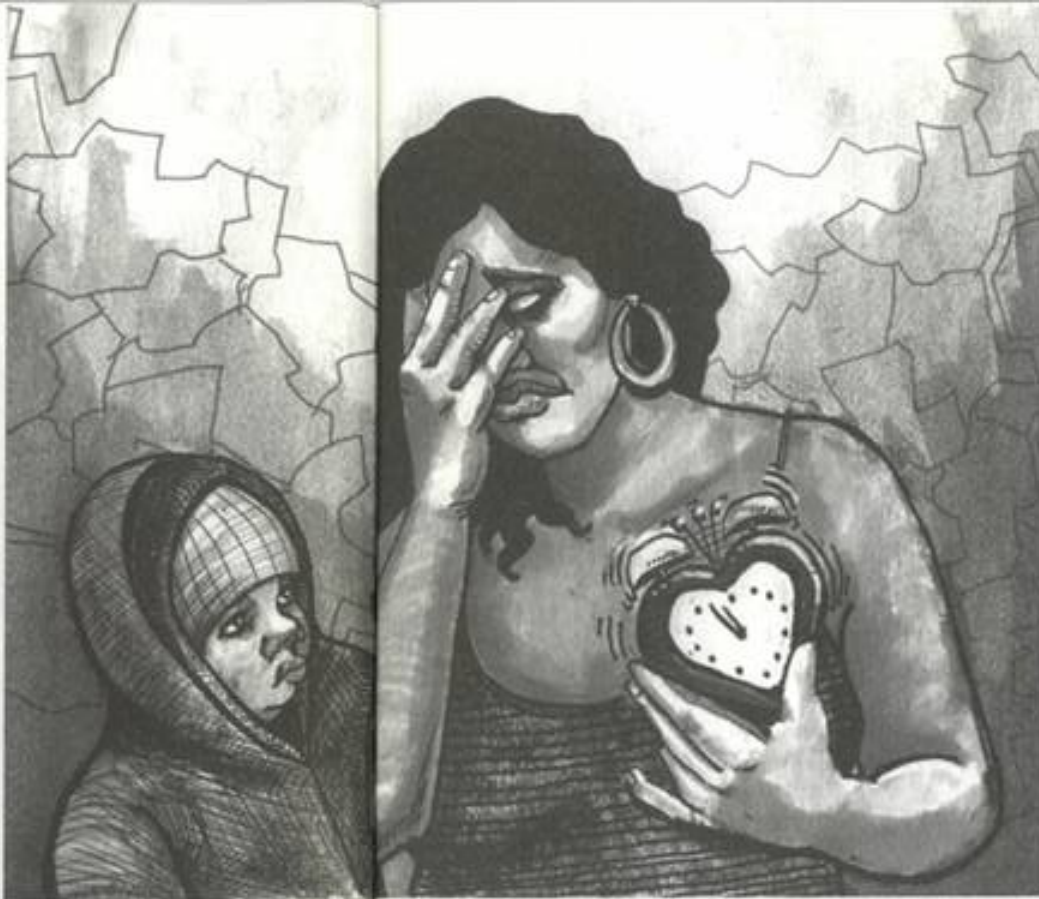
리스: 그러게요. 보통 승
무원이라고 하면 이쁘고
여행하면서 쇼핑하고 그
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수정: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실체를 제대로
잘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는 마음이 있어서예요. 어느
직업이든 힘들지만,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내용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현실
들이 많아요. 선생님이면 학
생들을 가르치는 직업, 소방
관이면 소방관, 그런데 승무
원의 직업은 기내에서 안전
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서비
스를 하는 직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낭만
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들만
보니까 문제인거죠. 이스탄
불 같이 가는 데만 10시간 걸
리는 곳을 갔다가 하루도
아와 하거든요. 또 0.8기압인
비행기에서 10시간 동안이
면 모든 신체기관들이 다 늘
어나고 붓고 생리도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스탄불을
돌아다니면, 올 때 코피 터지
는 거예요. 그런 실체를 모르
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연

예인을 만나기 위한 직업으
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여성
주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
성의 직종 중에서 되게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
는 현실인 이 곳에 대해 얘기
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요. 일단 채용부터가 승무원
삼천 오백 명 중에 오백 명
도 안 되는 사람만 남자니까,

리스: '왕상무 사건'도 왜곡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안전 담당
하는 사람을 뺄 때리는 일이
어디 있어요.

수정: 승무원이 그런 일을 하
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
가 않습니까요. 왕상무 사건
은 다들 그걸 봤을 때 '아주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들



했어요. 울어서 집 가서 며
칠을 앓아누울 정도로 속상
하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고
모하게 괴롭히는 데 문제화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예요. 그 사람은 때렸으니까 그
나마 기사가 났던 거죠. 게다가
가한국에서 '서비스'에 대
한 문제로 보지 않으니까 상
처받았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상처 받았다고 하더
라도 지원, 휴가, 산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지난번에 비행에서 손님 한
분이 그냥 비행기에서 극단
의 선택을 하셔서 유명을 달
리한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처치했던, 정신적 외상을 입
은 승무원들에게 회사에서
의 적극적 조치가 부족했어
요. 회사는 프로로서 견뎌야

하는 것의 문제지 상처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해요. 그나마 조금 발전되
어 있는 곳이 지하철, 철도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예요. 뛰어 들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아직까
진 다른 회사에서는 없어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기
감정이 소모되고 있거든요.
사실, 자기감정의 40%이상
이 소모되었을 때 감정노동
이라고 판단하는데 승무직
도 대단히 많이 감정이 소모
돼요. '회사에 상담사를 뒀
라. 개인적으로 안정이 되었
을 때 복귀를 시키는 게 낫
다. 안 그러면 지금은 생활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
점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
면 이 승무원이 안전한 존재
가 아닐 수 있다. 그 승무원

이 난동을 부릴 수도 있는 거
고.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했지
만 회사 차원에서 그런 것들
이 다 돈이기 때문에 아직까
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좀 관심을 가
져주시는 게, 그게 결국은 사
회적인 위험도를 높이는 문
제거든요. 경쟁력도 점점 떨어
어질 수밖에 없고, 이후에 심
리 상담 센터 조그맣게 만들
어 줬어요. 회사 외부에서 문
제를 삼아서 만들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승무원들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요새는 하도 이슈화가 되
니까 아주 가끔 뭇을 강좌 보
여주자 식으로 하기도 해
요.

승무원들이 인사, 사과하
기 다음으로 무조건 경청하
는 것을 한동안 중요하게 배
우고 나면 자기 얘기 하는 걸
차단하게 되요. 그게 고객과
의 문제에서만 그런 게 아니
고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결
국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차단을 하게 되더라
고요. 그걸 구멍 내고 폭발시
키는 게 정말 어려운 숙제에
요. 이 감정이 화가 나는 감
정이 맞는데, 3, 5년 이 지나
고 나면 '화가 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다가
더 지나면 의문조차 안 드는
거죠. 이 감정의 왜곡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에
요. 남편한테 일상적으로 맞
는 아내랄 비슷하다고 봐야
하나, 제일 심각한 거죠. 그
러다가 기형적으로 폭발되면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고.

리스: 그런데 회사에서는 왜

남성보다 여성을 선호하나요? 이유가 궁금해요.

수정: 이유는 딱히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에미레이트 항공을 탔는데, 남자 여객선이 많았어요. 여자가 많은 건 이쪽 동양권의 특성인 거 같아요. 이유가... 동양의 항공사들이 미주와 유럽이 나눠먹던 항공시장에 나중에 들어온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는 특화시키거나 경쟁력 갖출 수 없는 거죠. 문헌상으로 힛트를 얻은 것도 있지만 고품이 빠져 봐도 여성성의 강조라는 것 자체가 동양권 항공사들의 가장 큰 경쟁 요소였다. 싫어요. 특히 일본, 싱가포르 쪽은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무릎 꿇는 것, 치마 찢어서 이만큼 올리고,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 유럽인이란지, 미국 남성들이 원하는, '나비부인'에서도 볼 수 있는, 그 동양 여성의 모습을 비행기에 특화시켜 놓은 것 같아요. 비행기는 외국에서 가져다 쓰기에 그럴 특화시킬 수는 없었고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항공사도 그 아이디어를 가져다 쓴 거죠.

리스: 여성성 강조인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복장 문제도 올해 초에 이야기 됐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훈련, 안전 생각하시면 당연히 바지를 만들어야 할 텐데, 치마를 고집하는 건 여성성 강조라는 것 같아요.

수정: 대한항공이 이번 유니폼 제작 시에 '처음으로'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



어요. 아시아나는 최근 인권 위 권고이후 바지 유니폼을 제작했지만 신입승무원들에게 여전히 치마 유니폼만 지급하고 있긴 해요. 아무래도 구조적인 것들이 바뀌어 있지 않으니깐 눈치보고, 자유롭게 못하죠. 문화를 바꾸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래도 샌프란시스코 사고 덕에 복장문제가 되게 많이 여론화 되고 '사고 때 그렇게 (구조)하는 사람들한테 기업에 이상한 것들을 규정화시킨 것 맞네. 너희 정말 웃긴다.' 이런 생각들이 확대 되서 기업과 승무원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생각의 전환이 행동으로 전달되는 데는 시간차가 있죠. 용기도 필요하죠. 여전히, 이

미지를 보고 들어온 후배들도 처음엔 예쁜 옷, 치마를 선호하다가 2-3년 정도 일하다 보면 결국은 '선배님 말이 맞아요.' 이렇게 되요.

리스: 성희롱, 성폭력도 있나요?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은 대단히 많아요. 구절은 있지만, 그걸 적용해서 문제화하는 게 어려워요. 사내에서 기의 생계와 회사 인간관계와 모든 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말하기 힘들죠. 아무리 손님과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률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상무정도 되거나 그랬을 때는 기업, 그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도 있고요. 왕상무-승무원의 문제가 포스코-대한항공 기업 간의 문제로 뜨는 거예요. 그 사건 후에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아시아나로 넘어왔어요. 기업은 결국 이익이잖아요. 결국은 돈을 포기할 만큼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다루고 싶진 않죠. 그리고 그걸 또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인해서 승무원들이 그렇게 느끼게 하죠. 근데 상사-직원들끼리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보여줘야 하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처리

리스: 노동조합도 있지 않나요?

수정: 그나마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쪽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바뀌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대단히 안 좋잖아요. 다 본인들의 문제이고 본인들이 바뀌니까야 할 문제인데, 이 단체를 통해서 바뀌나갈 수 있는 게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

구하고 거기에 가입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요. 사실 거기 들어가서 얻는 불이익이 힘든 거죠. 아시아나는 99년도에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아시아나항공 창립 후 급성장하면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전 직원들이 고군분투했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비행기를 140시간 탔었어요. (지금은 한 달에 100시간)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임금 한 번 안올리니까, 그만큼의 보상 없이 힘든 시간을 견디다 보니 노동조합이 생겼을 땐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발 손톱, 머리 검사도 많이 당해서, 머리 규정 없애 달라, 임금 올려 달라, 그때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회사가 대항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이, 노조를 가입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 불이익 보다 '나는 이 조합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도 노동조합이 무슨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란 걸 알지만 본인은 정작 가입 못 하는 거죠.

리스: 노동조합에서의 좋은

기억은 없나요? ㅎㅎ
수정: 왜 없겠어요. 정말 힘들었던 근무조건을 그나마 지금 정도로 바꿔왔던 것. 회사의 일개 부속품이 아니라 존엄 있는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왔던 일련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최근엔 업무상 지장을 주지도 않는 각종 용도복장규정들을 개선한 것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 외에도 승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좋은 기억이 많아요. 95년도쯤에는 임양되는 예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임양될 때 서양인한테 안기는 거랑 한국인에게 안기는 느낌이 다르니까, 애들이 부모한테는 안 가고 보모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할 때, 저도 속상해서 울고 막 그랬어요. 되게 많은 부분에서 사건이 해결될 때, 인간 내 인간으로 고마움을 받거나 했을 때도 좋아요. 참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 년에 한 번 정도 자리가 나면 비행기 티켓 싸게 구매해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때도 뿌듯해요.

엘리스는 '어떤 일든 힘든 것과 성취감이 동시에 존재하긴 하지만 (승무원이라는)업무의 핵심을 보아왔으면.' 이라는 글자로 인터뷰를 잘 끝맺었다. 리스는 수정씨의 치열한 삶, 그러면서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직접 듣게 되기도 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고민스러운 상황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수정씨가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지만 그중에서 '지금까지 역사를 바꾼 건 1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다.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다가 엘리스는 잠이 들었다.

(to be continued...)



감자 :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참고 자료로만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몇몇 학교들에만 남아 있는거라 생각했던 '여성주의 잡지'를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새롭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페미니즘은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잡화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잡지가 페미니즘이 먼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일, 그리고 나 자신의 이야기였음을 알아가는 통로이길 바랍니다. 미미하지만 새롭고 삶 단 이 시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빌며! 반향을 함께해준 앨리스 고맙고 사랑합니다~

덧글 수정 장해 :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페미니즘은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잡화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잡지가 페미니즘이 먼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일, 그리고 나 자신의 이야기였음을 알아가는 통로이길 바랍니다. 미미하지만 새롭고 삶 단 이 시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빌며! 반향을 함께해준 앨리스 고맙고 사랑합니다~

마이팅후드 : 마침내 우리의 글이 인쇄되어 세상에 드러나는 값진스러운 순간이니, 한 번 수초초감처럼 즐겨볼까요. 추진 이 일들을 역사 속에서 치밀하게 삼아온 셈 수 없이 많은 신배 페미니스트들에게 - 비록 심명 '페미니즘'이란 말 자체는 들어본 적조차 없더라도 결국 같은 생각 아래 삼아온 마음까지 포함하여 -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어깨를 밟고 서 있는 셈이기에 제가 페미니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수많은 행복들에 대해 아무리 고마워해도 모자람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한국 사회에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사는 것이 그럭저럭치는 않지만, 어쩌면 나와 다른 여성들을 좀 더 존중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편이었을 수도 있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 불치병' 마주하는 모습들을 이겨내면서 더 강하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해준 앨리스 친구를 사랑합니다! 페미니즘이 아무리 해방의 언어라고 해도 그 언어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느라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적미 있었을까요. 함께 하며 때 순간이 너무나 즐겁고 소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평생 함께 활동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해야만 하는 일도 새롭고 신나는 일도 너무나 많은 요즘인데도 이러한 글들을 이 후까지 꼼꼼히 읽어주시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잠자리안경 : 밤하늘이 가장 많이 웃고 행복해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성지를 준비하면서 논리당 사내, 자보 사건 등 말쑥과 담담은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하고, 물어내는 과정들이 저에게 참 많이 남습니다. 이번 로가 읽는 사람들에게 페미니즘적 관점과 시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문제들과 일상 속 관계들에 대해 고민을 던져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페미니즘은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 좋은 공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 장 안되는 이 종이도 조금이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과 살들이 앞으로도 두근두근 저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만큼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다양한 내용들로 다시 만날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동별거승이 :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페미니즘을 고민하고, 내가 알던 페미니즘을 다시 쓰고 정리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익히고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신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욕심에 가득찬 글 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담회, 간담회를 진행하면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해서 심마리 같은 것을 보기도 해서 회색에 가득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 돌고, 즐겁고, 왕자처럼하며 행복 한 감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잡지가 좀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러한 행복을 함께 해주셨던 앨리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야몬드 : 매 회의 때마다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간담회도 좋고 그냥 다 좋았어요. 예해, 다섯시간 내내 회의 할 때도 물론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무래도 페미니즘과, 그리고 앨리스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도 많이 공유하고 싶다.' 무릇, 문 한쪽도 나눠먹는다고 했었지요. 허허, 좀 도세요. 머지않아도 행복 2호가 업은 나오길, 그리고 2호가 나올 때 쯤에는 더 치밀해지고 성숙해있길